

함경북도 화대군 금성리 발해 벽화 고분의 복식

김민지

A Study on the Costume of Kumseong-li Fresco, North Korea

Minjee Kim

(2007. 7. 18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ostume depicted upon the fraction of fresco which was excavated from Kumseong-li, Hwadae-Gun, Hamkyungbuk-Do, North Korea in 2004.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ts relics, this tomb was reported to belong to Parhae Dynasty(698-926). The fraction of fresco only shows below part of the knees of a man. A light red colored robe reaches down to his ankles on the back, whereas front part of it looks tucked up, which is likely to have slits on both side seams. Although tightly wrapped shins were reported as a pair of gaiters, there is no decisive evidence on the fresco. I suggest another possibility that this man wore slim pants. Also in order to figure out if these shins are considered as gaiters, I proceed comparative research on the historical sources about gaiters of countries and eras adjacent to Parhae. Consequently the idea that people of Parhae might have used gaiters turned out to be acceptable. The black boots show rather basic style: the toe tips are not pointed up, boot leg doesn't look either wide or long. These boots can not be identified with Ammohwa(暗摸靴) which the envoy Yang(楊) gave the protocol Miyakoyoshika(都良香) at his official visit to Japan, because Ammohwa has not yet been properly defined.

Key words: Kumseong-li(금성리), fresco(벽화), robe(袍), gaiters(각반), Ammohwa(暗摸靴)

I. 서론

2004년 9월 초 무렵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함경북도 일대의 발해시기 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벽화가 묘사된 고분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였다. 함경북도 화대군 금성리에 소재한 이 고분의 발굴 사실은 2004년 10월 22일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 내 언론에 공개되었고,¹⁾ 같은 날 '연합뉴스'를 통해 국내에도 알려졌다.²⁾ 이후 북한의 2004년 11월 18일자 '조선중앙통신'³⁾과 2005년 11월 27일자 '우리민족끼리'⁴⁾에도 유사한 내용이 실렸으며, 발굴 보고서가 2005년 『조선고고연구』1호에 게재되었다.⁵⁾ 필자는 이 발굴보고서를 구하게 되면서 연구에 착수하였고, 국외에 거주하는 동안 국내에는 차단되어 있는 벽화와 유물의 사진들을 웹(web)을 통해 발견하여⁶⁾ 이를 국내 언론에 알린 바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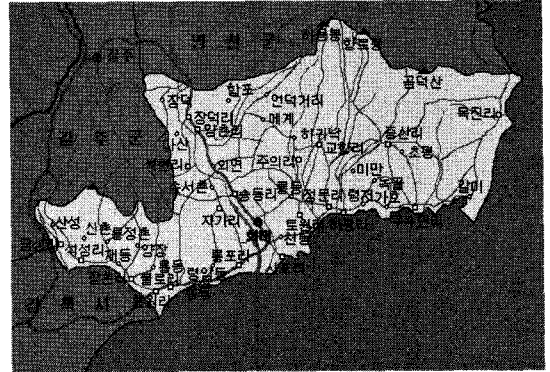
비록 남아있는 인물의 모습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 글을 통해 금성리 벽화고분을 소개하고 복식을 논의하는 것은 복식사 및 인접학문 분야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 이에 소견을 정리해두려 한다.

II. 고분 소개 및 의의

1. 고분의 위치와 구조,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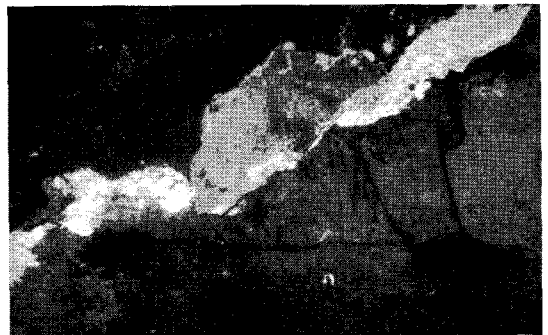
벽화는 함경북도 화대군 금성리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500m가량 떨어진 나지막한 산의 경사면에 위치한 한 고분에서 발견되었다.(<그림 1>) 화대군과 그 주변은 발해 시기의 여러 고분군과 산성, 토성, 24개 돌유적, 탑터, 절터 등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고분의 형식은 연도(羨道: 무덤 안길)와 묘실(墓室: 무덤간)로 이루어진 평천정의 석실봉토묘(石室封土墓)로 근처의 금성리 발해 고분군에서 발견되는 구조들과 동일하다.⁸⁾ 이러한 평형천정 단실봉토묘는 발해 고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형식으로 4세기 이후 고구려 중·후기의 주요 무덤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⁹⁾

이 벽화 고분은 수차례의 도굴로 인해 벽화가 손



<그림 1> 벽화 고분의 위치 : 화대군과 금성리¹⁰⁾

상되고 유물이 유실되었지만, 발굴 당시 금도금한 청동 연꽃 무늬 장식판과 청동케고리, 청동 모서리장식품, 누름못 모양의 청동못, 청동판조각, 쇠관못, 벼루 2점, 질그릇조각들, 옷칠 조각, 붓나무 껍질 조각, 숯 등이 발견되었다.¹¹⁾ 또 묘실 내의 관대에서 두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어 부부합장묘로 인정되었다. 묘실의 벽과 천정에 모두 회칠을 하고 동, 서, 북벽에 벽화를 그렸으나, 발굴당시 북쪽 벽면의 아래 부분에만 약간의 회벽과 함께 벽화가 남아있었다.¹²⁾ 벽화는 두 다리를 벌리고 정면을 향해 서 있는 인물의 모습(<그림 2>)이 너비 40cm, 높이 약 24cm의 크기로 남아있었고, 벽에서 떨어진 조각들로서 연꽃대 위에서 있는 신선과 인물들, 새 모양의 구름무늬 장식을 비롯한 장식 무늬들도 발견되었다.¹³⁾



<그림 2> 금성리 벽화의 인물¹⁴⁾

이 고분이 발해시기의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첫째 고분구조가 연도와 묘실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발

해의 석실봉토묘 형식이라는 점, 둘째 금도금한 장식관의 연꽃무늬가 발해 막새기와를 비롯한 여러 장식물에서 널리 쓰인 도안이라는 점, 셋째 벼루의 크기와 형태가 상경용천부에서 발견된 것¹⁵⁾과 거의 같은 점, 넷째 쇠관못의 크기와 형태가 발해시기의 여타 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며 길이는 고구려 시대의 것보다 훨씬 짧아 구분되는 점 등이다.¹⁶⁾ 필자도 이상의 정황들에 기초해 이 고분을 발해의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며 이를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벽화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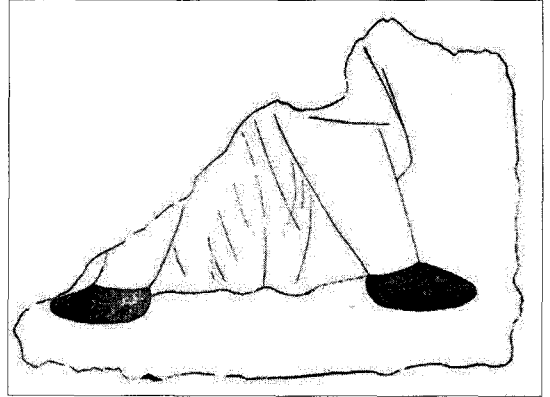
금성리 벽화고분은 북한에 소재한 발해 고분으로서 처음으로 벽화가 발견된 것이며, 여기에 비록 일부뿐이기는 하지만 인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이에 관한 정보를 고찰해 볼 수 있다. 발해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벽화로는 1980년 중국의 길림성(吉林省) 화룡현(和龍縣)에서 발견된 정효(貞孝)공주묘¹⁷⁾와 1991년 흑룡강성(黑龍江省) 영안(寧安)시 상경성(上京城) 부근에서 발견된 삼령둔(三靈屯, 三陵屯) 2호분이 알려져 있으나, 삼령둔 2호분 벽화의 인물은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아¹⁸⁾ 사실상 금성리 고분이 정효공주묘에 이은 두 번째 벽화자료가 된다. 발해는 자체적으로 남긴 문헌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복식연구에 관련된 고고학 자료도 다른 시대에 비해 빈약한 상황이므로 인물의 일부가 묘사된 이 벽화 조각이 지닌 사료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Ⅲ. 인물과 복식

벽화의 조각은 묘실의 북벽 동쪽 아랫부분의 벽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두 다리를 벌리고 정면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의 무릎 아래 부분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2, 3>) 발굴 보고서에는 “연한 붉은색 옷을 입고 다리에는 흰 각반을 치고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다¹⁹⁾”고 하였다.

1. 포(袍) ; 길이, 색, 옆트임 가능성

<그림 2>에 인물의 발목 사이로 수평의 선이 보이



<그림 3> 금성리 벽화 인물 묘사도²⁰⁾

는데 이는 인물이 착용한 겉옷의 뒷자락 밑단 끝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인물이 착용한 겉옷은 길이로 보아 포(袍)라 하겠으며 포의 길이는 인물의 발목 부근까지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의 색깔은 발굴보고서에 “연한 붉은색”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신당서(新唐書)』발해전(渤海傳)에는 6,7질(秩:品)의 관복(官服)색으로 기록된 “천비(淺緋)²¹⁾”색을 상기시킨다. 인물의 포를 기록에 나오는 6,7질(秩:品)의 관복 포라 하기는 어렵지만, 기록과 벽화로써 발해 시기 연한 붉은 색의 포가 존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연한 붉은 색, 즉 천비색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 905-927년에 걸쳐 완성된 일본의 왕실문서인 『연희식(延喜式)』에는 각종 색과 직물에 따른 염색 재료를 정량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발해와 동시대의 것으로 당시의 염법을 복원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천비색의 룡(綾), 면주(綿紬), 동시(東紬), 시포(貰布), 한 필(疋)을 염색하는 데 꼭두서니(茜) 큰 30근, 쌀 5되, 재(灰) 2석, 쏘나무(薪) 360근이, 백(帛) 한 필(疋)을 염색하는 데 꼭두서니 큰 25근, 쌀 4되, 재 2석, 쏘나무 360근이, 갈포(葛布) 한 단(端)을 염색하는 데 꼭두서니 큰 10근, 쌀 1되, 재 4두(斗), 쏘나무 90근이 든다고 되어있다.²²⁾

홍염의 역사는 이미 중국 주대(周代: BC. 300-250)에 홍화(紅花), 꼭두서니(茜), 소목(蘇木) 등으로 붉은 색을 염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²³⁾고 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이아(爾雅)』, 『주례(周禮)』에

는 홍색계(紅色係)의 계 색을 침염횡수에 따라 열고 질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²⁴⁾ 발해와 같은 시기 통일신라에서 홍염을 관장한 홍전(紅典)과 소방전(蘇芳典)이 있었고 여기에 각각 6인(人)의 모(母)를 두었다²⁵⁾고 한 것은 관 주도하의 홍염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당시 당, 신라, 일본, 발해 등 동아시아의 제 국가들은 율령의 반포와 수반하여 관리의 관복색을 품급에 따라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관복색 체계에서 비(緋), 주(朱), 단(丹), 적(赤) 등의 붉은 색들은 자(紫)색 다음의 서열에 위치하였다. 색의 질고 열음에 따라 심비(深緋, 緋), 천비(淺緋)로 구분되기도 하였는데, 질은 것이 열은 것보다 더 우위의 색으로 규정되었다.



〈그림 4〉 시위(侍衛)모사도(정효공주묘 동벽)²⁶⁾

다음으로 포의 옆트임 여부이다. 포의 뒷자락은 다리 뒤에 수평으로 밑선을 보이지만 앞자락은 윗부분의 어딘가로 걷어올려 착용하였는지 무릎 아래 부분이 노출되어 보인다. 포의 앞자락을 허리춤에 끌어올려 다리를 노출시킨 모습은 활동의 편의를 위한 착용방식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당시 회화자료²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예로 정효공주묘 벽화에 묘사된 동·서벽 시위 2인의 포 앞자락 부분도 걷어올려져 있다.(<그림 4>) 이와 같은 착용방식을 고려

할 때 옆트임이 없는 포였다면 포의 뒷자락 밑선이 벽화에서 보여주듯 안정된 수평선으로 표현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하면 인물이 착용한 포는 발목까지 오는 길이의 연한 붉은 색의 것으로 옆에 트임이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2. 각반 혹은 폭이 좁은 바지(小口袴)

인물의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은 의복이 다리에 꽤 밀착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발굴보고서에는 “다리에는 흰 각반을 치고…”라 하였다. 그러나 벽화 잔편에 이를 각반을 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아 이 글에서는 이를 각반이라고 그대로 단정짓기보다 좁은 바지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발굴보고서에서 이를 굳이 각반으로 본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에 각반이 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상황 하에서 사용되었는지 검토함으로써 각반으로 보는 견해도 함께 검증해 볼 것이다.

1) 각반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

인물의 발목과 정강이 부분이 인체에 밀착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각반을 착용하였다는 단서, 가령 각반의 끈이라든가 바지를 덮어 감아 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각반을 칠 경우 그 부위는 신체에 밀착되지만 각반 위의 무릎 및 대퇴부위는 헐렁하게 표현되거나 각반이 착용된 선이 보이는데, 이 벽화는 무릎 아래의 부분만 남아 있어 그 윗부분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벽화의 잔편에 각반을 착용한 단서가 분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굴보고서에서 이를 각반을 착용하였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심하던 중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대백과사전』에 기술된 “각반” 및 “행전”에 관한 설명을 찾아보게 되었다. 둘은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로 비교적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행전” 항을 원용하면 다음과 같다.

“무릎아래로부터 발목까지 사이에 치는 물건. 지난 날 우리 나라 남자옷차림에서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바지가랭이가 어지러워지거나 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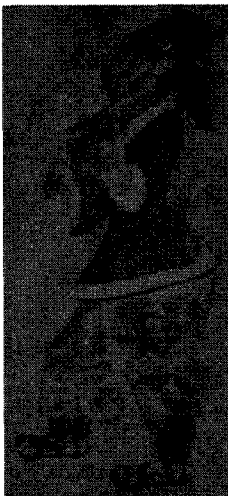
지는 것을 막으며 발동작을 거뜰하게 하기 위하여 찼다. 다리에 행전을 치는 풍습은 이미 삼국시기에 있었으므로 그 연원은 더 오래 것이다. 고구려 무덤 벽화에 의하면 삼국시기 남자들은 로동할 때나 교에나 무술훈련을 할 때 흔히 행전을 찼다. 행전에는 누비지 않은 것과 누빈 것이 있었다. 누비지 않은 행전은 장방형의 천으로 정강이를 감싸고 아래 우에 달린 끈으로 매게 되어 있었다. 누빈 행전은 같은 장방형의 천에 풀솜과 같은 것을 두고 우에서 아랫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누빈 것인데 주로 겨울철 전투훈련을 하거나 전투장에 나갈 때 리용하였다. 행전에는 짐승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었는데 흔히 사냥군들과 군인들이 썼다. 이러한 행전은 그 후 발해 및 후기신라 시기나 고려 때에도 계승되었으며 리조 때에도 널리 리용되었다. 리조시기의 행전은 주로 무명으로 만들었는데 일부 산간지대에서는 무명이 귀하였으므로 베로 만들었다. 행전은 바깥에서 많이 활동하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편리한 옷차림 요소로 광범히 리용되었다²⁸⁾”

이 내용은 북한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노동, 교예, 무술훈련과 관련된 인물들이 각반을 착용한 것으로 보고, 고구려시기 혹은 이전에 각반이 이미 존재하였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 각반의 재료로는 면(綿), 베(布), 가죽과 천을

누벼 만든 것을, 형태로는 장방형에 끈이 달린 형태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북한에서 간행된 『고구려문화사』에도 무용총 기마인물, 안악3호분의 무사, 약수리, 통구 4호묘의 문지기 장수 등에서 고구려시기 행전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⁹⁾ 이처럼 북한에서는 고구려 시기 각반의 존재를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금성리 벽화인물의 차림도 각반을 착용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보고하였다고 여겨진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고대의 각반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아온 듯하다. 유희경의 『한국복식사연구』에서는 『고려도경(高麗圖經)』의 국사복(國師服)에 보이는 금발(金跋)³⁰⁾을 무릎아래를 둘둘 말아 감싼 각반으로 보고 고려시대에 “감발(金跋)형 각반”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행전을 찼다고 설명하였다.³¹⁾ 최근 간행된 번역서에는 이 기록의 “금발차(金跋遮)”를 “인도의 고대 무기”로 해석하고 있어서³²⁾ “금발(金跋)”을 “각반”이라 할 수 있는가는 현재로서 의문이다. 아 물론 이 고려시대 “감발(金跋)형 각반”설이 조선시대의 행전의 시원격으로 『민족문화백과사전』등 백과사전류에 설명되어왔다.³³⁾ 『한국복식사사전』 및 『한국복식문화사전』에도 조선시대의 행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어³⁴⁾ 일반적으로는 각반이 주로 조선시대에 착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각반의 예를



〈그림 5〉 장천1호분 각반



〈그림 6〉 수산리 교예인의 각반

지적한 것은 박춘순의 『바지의 문화사』가 유일한 듯하다.³⁵⁾ 저자는 바지의 기원을 설명하는 한 설로 “경의(脛衣) 기원설”을 설정하고 정강이 둘레를 감싸는 경의의 형태를 “방(方)형·평면형”, “원통(圓筒)형”, “투고(套袴)형³⁶⁾”으로 분류하였으며, 고구려의 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분벽화에 보이는 각반의 형태를 ‘행전’, ‘경의’, ‘각반’의 용어로 언급하였다. 약수리 벽화 우사도(牛舍圖)에 보이는 하인의 검은 행전, 장천 1호분 전실 좌벽 수렵도의 간두희(竿頭戲)가 착용한 검은 행전(<그림 5>), 수산리고분의 곡예사의 경의(<그림 6>), 대안리 제 1호분의 북벽 인물도에 보이는 검정색 각반 등이 지적된 예들이다. 정강이 부위가 인체에 밀착되어 있고, 무릎 위 부분이 혈렁하게 표현된 점, 바지와 정강이 부분의 소재 및 색상이 달리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필자도 이상의 예 및 앞의 『고구려문화사』에서 언급한 예들을 각반으로 보아도 좋다고 판단한다. 비록 그 동안 남한 학계에서 고대의 각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이 글을 통해 북한 학계의 각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고구려 고분벽화를 재검토하게 됨으로써 고구려시기 교예, 군사, 노동하는 계층의 인물들이 각반을 착용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발해 시기를 전후해 각반의 사용 상황을 전하는 중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자료들을 모아 분석, 정리한다.

2)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된 각반

정강이를 묶어 쓴 천의 시원은 중국 상(商), 주(周)시기에 비롯되었다. 『시경(詩經)』 및 『좌전(左傳)』에 “사폭(邪幅)”, “폭(幅)”, “폭(幅)”으로 기록된 것이³⁷⁾ 한(漢)대 이후의 “행등(行騰)” 혹은 “행전(行纏)”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³⁸⁾ 『시경』의 기록에 대한 주희(朱熹)의 전(傳)에는 제후가 천자를 뵈올 때³⁹⁾, 『예기(禮記)』에는 아들이 부모를 모실 때 착용한다⁴⁰⁾고 하여 다리를 간편하게 하여 예(禮)를 갖추는 목적으로도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빈번히 기록에 등장하는 예는 주로 활동을 민첩히 해야 하는 병사⁴¹⁾와 의위 및 수레를 담당한 대대(大隊)⁴²⁾ 등의 차림에서이다. 그 외, 당(唐)시기 정관(貞觀) 3년(629)에는 동사만(東謝蠻)에서 입조(入

朝)한 사신이 가죽 행등을 착용하였다⁴³⁾는 기록이 있고, 부남악(扶南樂), 천축악(天竺樂) 등에 맞추어 춤을 추는 무인(舞人)⁴⁴⁾이 착용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부남악에 춤을 추는 무인은 조하(朝霞)행전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조하는 경사 혹은 위사를 먼저 부분염색하여 제직함으로써 아침 안개가 서린 듯한 느낌의 문양을 표현해내는 이카트(Ikat) 직물로 알려져 있다.⁴⁵⁾ 진(陳), 당(唐)의 시(詩) 중에는 비단(羅)에 수놓은 행전⁴⁶⁾, 꽃무늬가 있는 채색한 포(彩布)로 만든 행전⁴⁷⁾ 등도 등장하며, 명(明)대에는 금(錦)행전이 남만(南蠻) 악공인(樂工人)의 관복(冠服)으로 제도화되었다.⁴⁸⁾ 이상으로 볼 때, 중국에서의 행전은 이미 상(商), 주(周)시기에 다리의 움직임을 가볍고 편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발생하여 후대로 오면서 예를 갖추는 용도로도 발전하였으며, 무관(武官) 및 무인(舞人)의 장식(裝束)으로 제도화되기도 하고, 재료와 장식에 다양성이 가미되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착용되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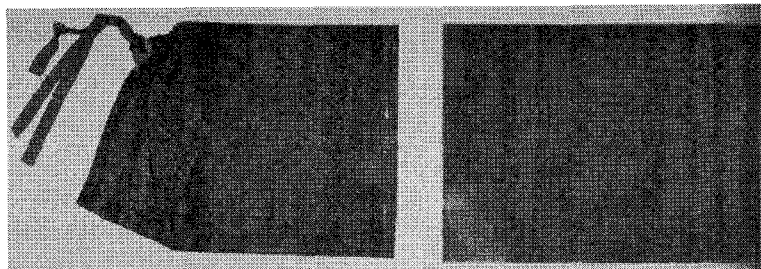
현존하는 중국의 자료가 주로 문헌에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 일본의 자료는 문헌 뿐 아니라 발해와 동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유물까지 정창원(正倉院)에 남아있어 적지 않은 참고가 된다. 우선 문헌기록 예로는 “경상(脛裳:はばきも)”, “행등(行騰, 行騰:はかばき)”, “경건(脛巾:はばき)”, “경전(脛纏:はばき)”, “각전(脚纏)” 등이 있다. 경상은 기록에 가장 일찍부터 보이는 명칭으로 착용 금지와 허용이 반복된 바 있다. 천무(天武)천황 11년(683)에 친왕이하 백료의 경상 착용을 금지했다가 4년 후(687)에 허용하였으며,⁴⁹⁾ 대보(大寶) 원년(701)에는 직관(直冠:5위) 이상은 백색 바지의 부리를 묶어 착용하게 하고 근관(勤冠:6위) 이하에게 백색의 경상을 착용하도록 하였다.⁵⁰⁾ 문무(文武)천황 경운(慶雲) 3년(706)에 다시 경상을 폐지함으로써⁵¹⁾ 이후의 양로(養老) 의복령에 경상이 보이지 않지만, 정창원에 남아있는 경상 유물들과 그 목서명은 경상이 악장속(樂裝束)으로 계속해 이용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양로 의복령에 규정된 것은 행등(行騰)과 경건(脛巾)이다. 무관 예복(禮服)에 금행등(錦行騰)이,⁵²⁾ 무관의 조복(朝服)에 백경건(白脛巾), 적경건(赤脛巾)이 포함되어 있

다.⁵³) 또 행등과 경건은 『연희식』 좌우근위부(左右近衛府), 좌우위문부(左右衛門府), 좌우병위부(左右兵衛府), 좌우마료(左右馬寮), 좌우병고료(左右兵庫寮) 등에도 하급 무관의 차림으로 수차례 기록되어 있다.⁵⁴) 행등이 단갑(短甲)과 함께 구비하는 것으로 기록된 예가 보이는 반면⁵⁵) 경건은 패갑(掛甲)과 더불어 착용한다는 기록 예가 있고,⁵⁶) 보병(歩兵)은 포(蒲)경건을, 그 보다 상위급인 기병(騎兵) 및 군사(郡司)가 옹피(熊皮)행등을 들렀다는 기록도 있다.⁵⁷) 『만엽집(萬葉集)』에는 행등을 노래한 시가가 남아있다.⁵⁸) 경건은 악장속으로 춤추는 인물이 많이 착용하였는데, 악장속으로 이용된 경건을 후대에 특히 “부현(附懸:ふがけ)”, “답현(踏懸:ふがけ)”라 하였다.⁵⁹) 『연희식』신기(神祇) 조비잡물(造備雜物)에 경건과는 별도로 경전(經纏)이라는 항목이 있고,⁶⁰) 천평(天平) 19년(747)의 대안사자재장(大安寺資財帳)에도 경전이 포함되어 있다.⁶¹) 『연희식』춘궁방(春宮坊) 및 좌우위문부(左右衛門府)에는 각전(脚纏)이라는 명칭도 보인다.⁶²) 이상의 무수한 기록들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도 이른 시기, 적어도 7세기 후반부터 각반이 무관 및 악장속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중 현전하는 유물과 대조하여 그 형태가 입증되는 것은 경상뿐이며, 문헌 기록의 예가 없지만 유물의 목서명에 기록되어 전하는 것으로 접요(接腰;せつ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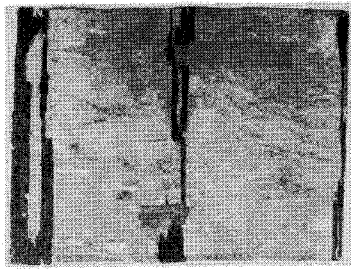
현재 보고되어 있는 경상의 형식은 두 종류다. 한 종류는 장방형의 천에 끈이 달려 정강이 주위를 묶는 형식(〈그림 7, 8〉)이고, 다른 한 종류는 윗부분이 경사지게 재단되고 바지 부리로 울수록 좁아지는 통

형 형식(〈그림 9〉)이다. 장방형의 형식에 역사경상(力士脛裳;りしきのすねも,〈그림 7〉)⁶⁵), 파리경상(婆理脛裳;ばりのすねも, 〈그림 8〉)⁶⁶), 금경상(錦脛裳;にしきのすねも)⁶⁷), 포경상(布脛裳;ぬののすねも) 4 짝⁶⁸) 등의 예가 보고되어 있다. 이 중 목서명에 경상이라고 기재된 것은 파리경상(〈그림 8〉) 뿐이며 나머지 유물은 파리경상의 형태-장방형의 천에 끈이 달린 형식-에 비추어 경상으로 명명되어 보고된 것 같다. 소재는 포경상을 제외하고 걸감은 모두 금으로 되었으며 안감은 시(紵) 혹은 룡(綾)으로 되었다. 가로가 세로보다 넓은 장방형에 끈이 두 개 혹은 네 개 달려있어 정강이 주위를 둘러 묶게 되어 있다. 통형 형식으로는 2점의 백시경상(白繩脛裳;しろあしぎぬのすねも,〈그림 9〉)이 보고되어 있지만 이 역시 목서명에 경상이라 기재된 것은 아니며⁶⁹) 처음 공개될 때 보고된 바를 따라 통상 백시경상이라고 지칭되어 온 듯하다. 안과 겉 모두 백색의 시를 사용하고 포(布)로 세 겹의 심을 두고 누볐으며 금(錦)으로 윗 가장자리를 들렀다. 각 길이는 34, 42cm, 전개시 최대폭은 46, 47cm이고 바지부리 둘레는 31cm 정도로 발을 겨우 넣고 뺄 수 있을 정도로 좁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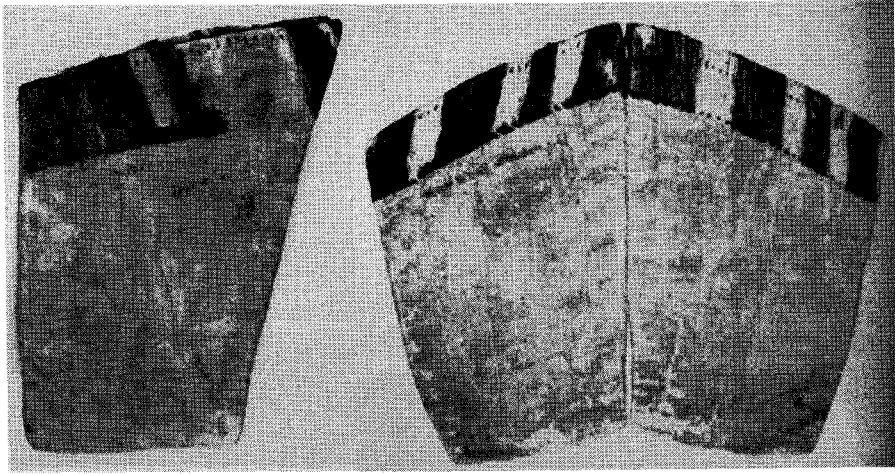
접요는 그 형식이 통형 형식이라는 점에서 백시경상과 유사하지만 길이가 62-85cm 정도로 백시경상과 비교할 때 2배 정도로 길다. 그 명칭에서 상단이 허리에 닿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긴 것도 있다. 윗부분은 백시경상보다 더욱 경사지게 재단된 형태이며, 위 혹은 아래에 고리가 달린 경우도 있다.(〈그림 10〉, 〈그림 11〉) 접요 유물의 수량은 많은 편이고 목서명에 분명히 접요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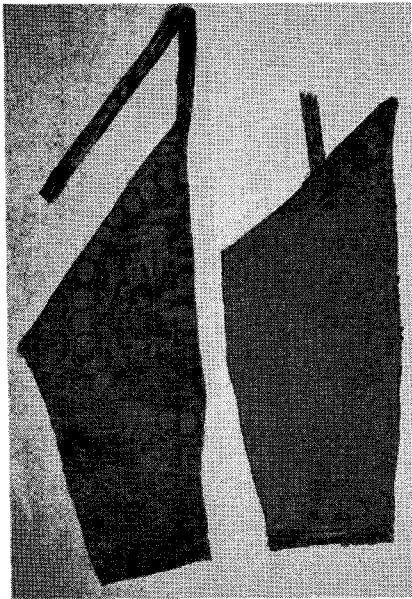
〈그림 7〉 오악역사경상(吳樂力士脛裳;こがくりしきのすねも)⁶³)



〈그림 8〉 파리경상(婆理脛裳;ばりのすねも)⁶⁴)



〈그림 9〉 백시경상(白紵經裳;しろあしぎぬのすねも)⁷⁰⁾



〈그림 10〉 당산악여무접요(唐散樂女舞接腰)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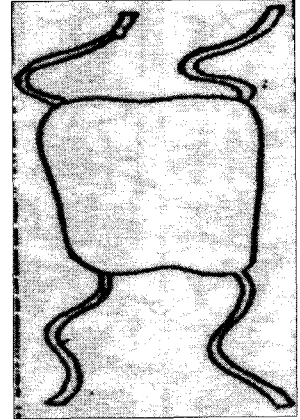
〈그림 11〉 포접요(布接腰:ぬののせつよ)⁷²⁾

록된 예가 여러 점이 있어서⁷³⁾ 목서명이 없는 유물도 형태에 의거하여 접요로 분류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목서명은 대부분 악장속으로 사용된 것임을 기재한 내용으로 목서명이 있는 접요는 곁이 금, 안이 시로 되었다. 목서명이 없이 마포 한 겹으로 된 포접요는 수량적으로 악장속용보다 더 많으며 이것은 일상에서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접요의 착용 모습은 비파(琵琶)에 묘사된 낙타타고 비파

를 연주하는 인물(〈그림 12〉), 수렵연악도(狩獵宴樂圖)⁷⁴⁾ 등 정창원의 유물에서 볼 수 있다. 접요가 백시경상과 같은 통형 형식이라 보면 정창원의 각반류 유물은 형식상 장방형과 통형의 두 부류로 볼 수 있다. 문헌 기록에만 있고 유물 예가 없는 행동, 경건, 경전, 각전 등도 이 두 형식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림 12〉 전자단오현비파(鈿紫檀五絃琵琶)에 묘사된 기마인물 및 세부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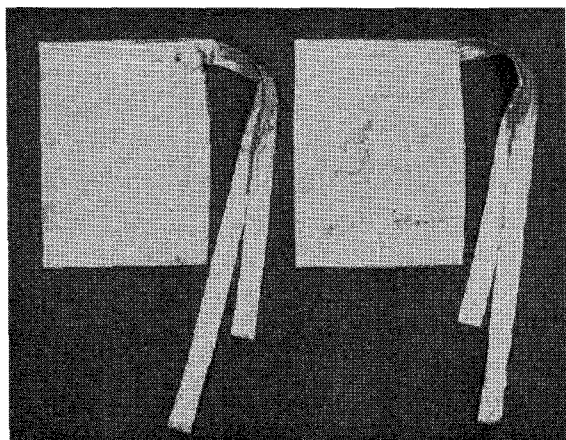
〈그림 13〉 회렴(回斂;
『악학궤범(樂學軌範)』)

3) 우리나라의 문헌기록과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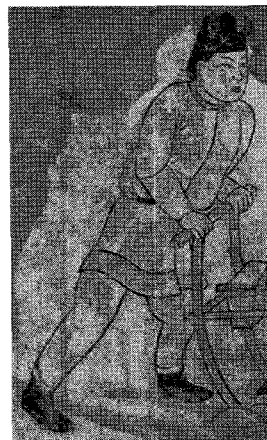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문헌에 각반과 관련된 용어가 본격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조선시대의 기록에서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행전(行纏)” 및 “행등(行騰)”이 수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기록은 세종 28년 3월 왕비의 상제(喪制) 의식에 하급관원들의 행전 착용을 논의한 내용에서 보인다.⁷⁶⁾ 또 같은 해 9월에는 각 전(殿) 및 궁(宮)에서 쓰는 행전을 만드는 저포(苧布)의 제직밀도를 15, 14, 13승(升)에서 12승으로 낮추도록 한 기록도 있다.⁷⁷⁾ 행전, 행등은 상제의식 외에 노부(鹵簿)의식에서도 하급 관인의 차림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렴례(小殮禮)의 보공품(補空品)에도 포함되어 있다.⁷⁸⁾ 또 남편을 여윈 사비 막덕이 절개를 지킴에 집에서도 항상 행전을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서 여자도 행전을 착용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⁹⁾ 성종 24년(1493)에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독제(蠶祭)⁸⁰⁾에서 창무(槍舞), 검무(劍舞), 궁시무(弓矢舞), 간척무(干戚舞)를 추는 공인(工人)이 회렴(回斂)을 착용한다. 흑면포(黑綿布)로 겹을 만들고 백포(白布)로 안을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고, 장방형 천의 네 모서리에 끈이 달린 형태로 회렴이 묘사되어 있다.⁸¹⁾ 〈그림 13〉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국왕의 행차에 수레를 따르는 정련배(正輦陪), 부련배(副輦陪), 옥교배(玉輦陪) 등이 정목(靑木) 행전을 착용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⁸²⁾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관례(冠禮)시 손님과 주인 이하가 입는 것으로 늑백(勒帛)이 있는데 이것이 속칭 행전이라 하였으며⁸³⁾ 상례(喪禮)시 남자의 상복에 포함된 행전⁸⁴⁾은 중국의 상복에는 없는 국속이라 하였다.⁸⁵⁾ 늑백은 일반적으로 천으로 된 허리띠를 가리키지만, 『사례편람』에서 행전이라 하였고, 『상례비요(喪禮備要)』등에 남자의 수의(褙衣)의 구성품목으로 늑백이 하의로서 행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⁸⁶⁾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보통 남자의 행전에 필요한 포의 양을 2척으로 규정하였다.⁸⁷⁾ 그 외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유생이 이전에는 연장자라도 평시에 행전을 쳤으나 지금은 젊은이들도 행전을 벗어버려 풍속이 변했음을 얘기한 내용이 있고,⁸⁸⁾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행등이 짧고 좁아서 단지 바짓부리만을 가리게 되면 복요(服妖)라 하였다.⁸⁹⁾ 이 두 기록은 17세기 이후 행전이 소멸되어 가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조선조의 문헌에 기록된 각반에 해당하는 명칭은 “행전”, “행등”, “회렴”, “늑백” 등으로 정리된다. 행차에 따르는 하급 관원 혹은 춤추는 무인의 차림으로 규정되어 기록된 점, 주로 남자가 착용하였으나 여자가 착용한 예도 있는 점 등은 발해 시기 중국, 일본의 예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다. 조선조의 행전이 가례 및 상례시, 그리고 수의로 남자의 복



〈그림 14〉 행전(20세기, 민속박물관)⁹⁰⁾



〈그림 15〉 씨뿌리는 농부(당 이수(李壽)묘 벽화⁹¹⁾)

식에 쓰인 점, 늑백이 행전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 점은 조선조 용례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현재 남아 전하는 우리나라 행전의 유물로 20세기의 것으로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통형 형식의 것이 있어(〈그림 14〉) 『악학계범』에 기록된 회령이 장방형 형식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각반도 장방형과 통형의 두 형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비교적 장황하게 기록을 들어 발해 당시의 주변국과 우리나라의 문헌 및 유물로 각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자료는 조선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고구려 이후 조선 세종 이전까지는 중국 및 일본과 비교될 관련 기록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공백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각반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시 중국 및 일본의 자료들을 고려할 때 자료가 없는 공백 시기에도 각반에 속하는 품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발해시기의 기록 및 유물로 발견된 자료는 없지만, 이상의 검토는 금성리 벽화의 인물이 착용한 것을 각반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각반이 주로 바지 위에 착용되었으므로 벽화 인물이 바지 위에 각반을 착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4) 좁은 바지(小口袴)일 가능성

언급하였듯이 무릎 위 부분이 소실되어 벽화의 잔편만 본다면 인물의 정강이에 통이 좁은 바지(小口袴⁹²⁾)를 착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당 초기 이수(李壽; 577-630)묘의 벽화 중 묘도 동벽 북쪽의 수렵도와 제 3천정의 우경도(牛耕圖), 파종도(播種圖), 우차도(牛車圖) 등에는 좁은 바지를 입고 검은 색 화를 신은 금성리 벽화 인물의 차림과 유사한 모습이 있다.⁹³⁾(〈그림 15〉) 말을 타고 수렵하는 인물, 소를 몰며 노동하는 인물들의 하체는 대퇴부까지 인체에 밀착된 형태로 드러나 보이지만 각반을 착용한 흔적은 볼 수 없다. 정강이 부위만을 보여주고 있는 금성리 벽화 인물이 이러한 좁은 바지만을 착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3. 화(靴) ; 암모화(暗摸靴)와의 관련

인물은 발등이 덮인 검은 색 신발을 신고 있다.(〈그림 2, 3〉) 신코는 뾰족하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표현되었다. 신코가 완만하게 표현된 점은 정효공주묘 벽화의 무사 2인과 시위(侍衛) 2인의 화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그림 4〉) 신목(鞞) 부분은 의복에 가려져 있다고 보이는데, 정강이가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목이 길거나 넓지 않아 보인다. 인물이 신은 것은 간략하고 기본적인 형태의 화

로 판단된다. 화는 통상 복숭아 뼈 위로 올라오는 신목이 있는 신을 일컬으며, 역사적으로 색, 소재, 장식, 신 굽, 신목, 신코의 형태 등에 변화를 주며 다양성을 추구해왔다.

발해의 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변국에 귀하게 전해진 사실이 두 차례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발해의 양(楊)대사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장객사(掌客使)⁹⁴ 도량향(都良香; みよこよしか)에게 암모화(暗摸靴)를 선물하였다⁹⁵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925년 2월 마지막 왕 대인선(大諲諲)이 배구(裴瑠)를 시켜 후당(後唐)에 화를 진상하였다⁹⁶는 기록이다. 양대사가 일본에 전한 암모화는 다른 기록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어서 발해의 독특한 것이었다고 여겨지지만, 사료에 용례가 없으니 어떠한 것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기 어렵다. 김육불(金毓黻: 1887-1962)이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에서 밤 행군에 필요하여 암모화라 이름했을 것이라 한 바 있고,⁹⁷ 『도씨문집(都氏文集)』을 번역한 나카무라쇼하치(中村璋八) 등은 “暗”을 길은, “摸”를 나무 이름으로 해석하여 “길은 색의 나무로 만든 화”라 하였다.⁹⁸ 우에다다케시(上田 雄)가 『渤海國の謎』에서 원래 기록 “謝渤海楊大使贈貂裘麝香暗摸靴狀”의 사항암모화(麝香暗摸靴)를 붙여서 ‘사항노루의 가죽으로 만든 신’이라고 한 적 있지만⁹⁹ 이후의 저서인 『渤海使の研究』에서는 『도씨문집』을 번역을 따랐다.¹⁰⁰ 사항은 『신당서』, 『구당서』 등에 토공품으로 수차례 기록되었고,¹⁰¹ 실제 신체에 발라 사용하였다는 기록¹⁰²도 있다. 특히 일본에서 국가적 통제 하에 신라 문물을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신청 문서인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에 단골 품목으로 기재되어¹⁰³ 일본에서의 사항의 수요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기록의 초구, 사항, 암모화는 모두 별개의 품목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카무라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여 “길은 색의 나무로 만든 화”라 하였지만, 暗摸를 “어두운 데서도 눈에 잘 띄어 찾을 수 있는”으로 해석하면 “밤 행군시 필요하여 이름붙인 것”이라고 한 김육불의 견해도 한자 하나하나의 뜻을 따라 풀이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혹 암모화가 『북제서(北齊書)』한보업전(韓寶業傳)에 보이

는 “길막화(吉莫靴)”¹⁰⁴처럼 한자를 빌어 표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보았지만¹⁰⁵ 이것 역시 하나의 가능성을 추정해 본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발표된 몇몇 글들에서는 정효공주묘 벽화의 화를 암모화라 하였는데,¹⁰⁶ 암모화의 정체가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효공주묘나 금성리 벽화 인물이 신은 화를 암모화로 연결짓기는 어렵다. 금성리 벽화 인물이 신은 것은 기본적인 형태의 검은 색 화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김육불이 『발해국지장편』에서 암모화를 선물한 발해 사신 양대사(楊大使)를 양중원으로 기록한 것¹⁰⁷도 오류임을 지적하려 한다. 도량향이 활동한 시기 일본을 오간 발해 사신은 양성규와 양중원 모두 해당되지만, 암모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양성규와 관련한 것이며, 암모화가 전달된 시기도 김육불이 지적한 현석 6년(876)이 아니라 양성규가 일본에서 교역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정관 14년(872) 5월임을 『도씨문집』과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을 분석하여 알아낼 수 있다. 양성규 일행이 발해를 떠나 일본의 가하국(加賀國) 연안에 도착한 것이 정관 13년(871) 12월 11일이고¹⁰⁸, 정관 14년(872) 4월 16일 도언도(都言道; 도량향의 원래 이름)는 장발해객사(掌渤海客使)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5월 7일 도량향은 원래 이름인 도언도가 이름답지 못하여 멀리서 온 손님에게 보이기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여 ‘량향(良香)’으로 개명(改名)하였다. 양성규 등 20인이 임명한 것은 5월 15일이며,¹⁰⁹ 5월 18일 일본 조정에 발해의 중대성(中臺省) 첩(牒)과 함께 신물(信物)인 대충피(大蟲皮) 7장, 표피(豹皮) 6장, 웅피(熊皮) 7장, 밀(蜜) 5곡(斛)을 전달하였다.¹¹⁰ 외교의 공식 임무를 일단락한 양성규 일행은 5월 20일-22일에 걸쳐 사적인 교역을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¹¹¹ 암모화는 이 과정에서 도량향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인다. 5월 24일 일본 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내 발해 사신단에게 연회와 주연을 베풀었고 이날 주객이 모두 취해 흥하여 부시(賦詩)를 지었다.¹¹² 그 다음 날인 5월 25일, 이별에 임한 양성규는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고 도량향은 관문을 닫고 술잔을 기울였다¹¹³고 기록될 정도로 이들의 교류의 정은 깊

었다. 도량향 문집에 남아있는 “贈渤海客扇銘(발해객 20인에게 나누어 준 부채의 명문)”, “謝渤海楊大使贈貂裘麝香暗摸靴狀(발해 양대사가 준 초구, 사향, 암모화에 대한 감사의 글)”, “贈渤海大使狀(발해 대사에 주는 글)”, “答渤海楊大使狀(발해 양대사에게 답하는 글)¹¹⁴⁾ 등 네 편은 이 기간에 양성규 일행과 교류하는 가운데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양중원 일행은 정관 18년(876) 12월 26일 출운국(出雲國)에 도착하지만 출운국의 도근군(嶋根郡)에 머물다가,¹¹⁵⁾ 다음 해인 원경(元慶) 원년(877) 6월 25일 출운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일본 태정관은 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 하여 입경을 허락하지 않았고 왕계와 신물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양중원은 가지고 간 진귀한 대모(玳瑁)술잔을 천황에게 주고자 하였으나 천황이 받지 않았다.¹¹⁶⁾ 단지 원경 원년 4월 18일에 존문(存問) 겸 영(領) 발해객사인 소외기(少外記)와 대춘일조신(大春日朝臣) 안명(安名) 등이 발해왕 대현석의 계(啓)와 중대성첩(中臺省牒)을 베껴 천황에 신속히 아뢰므로써¹¹⁷⁾ 이에 대한 답서(返牒)로서 일본 측의 태정관첩(太政官牒)을 도량향이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당시 발해의 중대성첩과 일본의 태정관첩은 일본과 발해의 교류에 한 조를 이루는 문서였으며¹¹⁸⁾ 『도씨문집』에는 “日本國太政官牒 渤海國中臺省 放還謝恩并請客使事 政堂省孔目官楊中遠等凡壹佰伍人”이 남아 있다. 양중원 일행은 입경하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머무는 동안 도량향에게 암모화를 전달할만한 교역이나 교류를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발해의 암모화가 일본에 전해진 것이 김육불이 지적한 대로 양중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성규와 도량향의 교류에 관련된 것임이 확인된다.

IV. 결론

복식사가가 복식사 연구 자료로서의 벽화를 다룰 때에는 문헌기록을 비롯해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어야 하고, 벽화 인물의 관찰에 있어 복식 구조와 연결지를 해안이 있어야 하며, 그 기술(記述)에 수반되는 용어와 서술어의 선택에 책임

이 따른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사진과 달리 벽화에는 당시의 사회 통념이나 그런 이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기에 그에 따른 오차의 범위도 포괄해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벽화를 통해 당시의 복식을 이해하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으로 복식사가의 판단과 해석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금성리 벽화의 인물은 무릎 아래의 한쪽 다리만 보여주는 벽화 조각에 불과하지만 복식연구의 자료가 귀한 발해시대의 유물로 간주되는 것이기에 사료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으며, 벽화 인물이 착용한 포와 각반 혹은 바지, 화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알려진 발해 복식에 부가되어 그 내용을 풍부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증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비교”, 즉 ‘문헌사료와의 비교’, ‘주변국 자료와의 비교’, ‘전후시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인물이 착용한 각 품목에 대한 의미를 끌어내보려 하였다.

인물이 착용한 포는 연한 붉은색으로 길이가 발목까지 올 정도로 길며, 허리 아래의 옆선에 트임이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리의 앞부분이 보이는 것은 포의 앞자락을 걷어 올려 착용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인물의 정강이 부위는 의복이 밀착되듯 좁게 표현되었는데 정강이에 착용한 것은 발굴 보고서에서 제기된 각반일 가능성과 좁은 바지일 가능성이 모두 인정 가능하다. 각반과 관련한 고구려 고분벽화, 중국 및 일본자료와의 사적 비교고찰을 통해 당시 발해에서 각반이 존재하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벽화 인물이 착용한 것도 각반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며, 무릎 위의 부분이 소실되어 각반이라 확정짓기는 어려운 까닭에 잠정적으로 좁은 바지를 착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각반의 모습이 금성리 벽화 복식의 고찰을 통해 부각된 것은 연구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수확이었지만, 추후 고구려 복식을 논의함에 “각반”의 품목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물이 신은 검은 색의 화는 신목이 길거나 넓지 않아 보이고, 신코도 높지 올라가지 않았다. 이는 정효공주묘에 묘사된 무사나 시위의 화와도 유사하며 실용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이다. 암모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기존에 알려진 내용의 오류를 지적한 것도 이 글을 통

한 또 하나의 부수적인 수확이었다.

비록 잔편이기는 하나 이 벽화 인물의 차림은 무관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인물이 무덤의 주인공을 지키는 무관 계통의 시종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참고문헌

- 1) 2004년 10월 22일 '조선통신' <http://www.kcna.co.jp/calendar/2004/10/10-22/2004-10-22-009.html>
- 2) 2004년 10월 22일 '연합뉴스'
- 3) <http://www.kcna.co.jp/calendar/2004/11/11-18/2004-11-18-007.html>
- 4) http://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_gisa/2005/2005-11-27-D2.htm
- 5) 최응선 (2005).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발해 벽화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호, pp. 3-11.
- 6) 최응선. 발해시기의 벽화무덤, http://www.kcckp.net/ko/news/news_view.php?23+16 리광일, 새로 발굴된 발해 시기의 벽화 무덤, http://www.kcckp.net/ko/news/news_view.php?23+29
- 7) 2006년 5월 27일 '문화일보' 1,2면,
- 8) 최응선. 앞 논문, p. 3, pp. 8-9.
- 9) 鄭永振 (1991). 高句麗·渤海·靺鞨 墓葬形制 比較研究. 百濟研究, 22, pp. 180-193.
- 10) <http://nk.joins.com/nk/map/i192.htm>
- 11) 최응선. 앞 논문, pp. 5-7.
- 12) 최응선. http://www.kcckp.net/ko/news/news_view.php?23+16
- 13) 최응선. 앞 논문, p. 7.
- 14) http://www.kcckp.net/ko/news/news_view.php?23+16
- 15) 상경용천부는 발해 문왕시기의 수도로 인정되는 곳이다. 금성리에서 발견된 벼루와 같은 형식이 상경용천부 유지의 T306에서 4개, T308에서 한 개, 도합 5개 출토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7). 六頂山與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pp. 96-97. 圖版 75,76. 참고.
- 16) 최응선. 앞 논문, pp. 8-10. 특히 벼루는 형태, 크기, 심지어 허리 부분에 복숭아 형태의 구멍이 뚫어진 것까지 상경용천부에서 출토된 것과 같다. 다만 상경용천부 벼루가 길면에 아무 색도 없는데 비해 금성리 벽화고분의 벼루는 감색을 칠한 것이 다른 점이라 하였다.
- 17) 벽화 및 복식에 대해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 1. 池升元 (1983). 淺談渤海貞孝公主墓壁畫. 延邊文物資料彙編, pp. 57-65. 방학봉 (1991). 정효공주무덤의 벽화에 대하여. 발해문화연구, pp. 109-130.

김민지, 이순원 (1993).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I) - 정효공주묘 벽화를 중심으로-. 生活科學研究, 18,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pp. 53-64; 김민지 (2000). 渤海服飾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65-85.

- 18) 벽화를 참관한 정영진에 의하면 묘실의 동, 서벽에 각 4인, 북벽에 3인의 여성이 묘사되어 있고, 용도 입구 좌우에 1인, 용도 동 서벽에 각 무사 1인, 도합 15명의 인물이 묘사되어 있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헌들 참고. 渤海王陵區探明大型石室墓發掘. 黑龍江日報朝文版, 1991. 12. 18. 黑龍江發掘渤海大型石室壁畫墓. 中國文物報, 1992. 1. 19. 1版., 鄭永振 (1994). 1991년에 發掘한 三陵屯渤海壁畫墓와 高句麗壁畫墓와의 關係. 한국상고사학보, 16, pp. 371-379; 鄭永振 (1999). 渤海 貞孝公主墓壁畫와 三陵墳二號墓壁畫. 高句麗·渤海 연구, II, pp. 79-94.
- 19) 최응선. 앞 논문, p. 7.
- 20) 최응선. 앞 논문, p. 10.
- 21) 新唐書, 卷 219 列傳 144 渤海 “以品爲秩 三秩以上 服紫·牙笏·金魚 五秩以上 服緋·牙笏·銀魚 六秩·七秩 淺緋衣 八秩綠衣 皆木笏”
- 22) 延喜式, 卷 14 縫殿寮 雜染用度 17 “淺緋綾一疋(綿紬, 東紬, 賁布亦同) 茜大卅斤 米五升 灰二石 薪三百六十斤 帛一疋 茜大二十五斤 米四升 灰二石 薪三百六十斤 葛布一端 茜大十斤 米一升 灰四斗 薪九十斤”
- 23) 吳淑生, 田自秉 (1986). 中國染織史. 上海人民出版社, p. 45.
- 24) 爾雅, 卷 6 釋器 “一染謂之緹 今之紅也 再染謂之頰 淺赤 三染謂之纁 纁絳也” 周禮, 卷 40 鍾氏 “三入爲纁 五入爲緹 七入爲緇”
- 25) 三國史記, 卷 39 雜志 8 職官 “紅典 母六人 … 蘇芳典 母六人”
- 26)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1991). 吉林省志, 권43, 文物志, 吉林: 人民出版社, p. 202.
- 27) 1958년 陝西省 西安市 楊思勛묘에서 출토한 석조 무사상에 앞자락을 길어올려 착용한 모습이 분명히 묘사되어 있다. 『國寶』中國歷史文物精華展, 香港: 香港藝術館, 1997, p. 259.
- 28) 조선대백과사전, 25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47.
- 29) 사회과학출판사 (1988). 고려문화사, 논장, p. 284.
- 30) 高麗圖經, 권18, 아세아문화사, 1972, 道敎釋氏 國師, “國師之稱 … 王見則拜之 皆服出水衲袈裟 長袖偏衫 金跋遮 下有紫裳 烏革鈴(宋本 鈴)履 人衣服雅略與中華同 但麗人大抵首無枕骨 以僧祝髮乃見之”
- 31) 유희경 (1989).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p. 202, p. 391.
- 32) 서궁 저,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2005). 고려도경. 서해문집, p. 151.
-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p. 609-610.
- 34) 김영숙 (1988). 한국복식사사전. 민문고, p. 526. _____ (1998). 한국복식사사전. 미술문화, pp. 401-402.

- 35) 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민속원, p. 200, p. 203, p. 208, p. 209.
- 36) 동형이지만 밑부리가 직선, 상부가 곡선을 이루고 대개 긴 바지 위에 덧입는 형. 후술할 일본의 점요(接腰)가 이에 속한다. 박춘순. 위의 책, pp. 19-25.
- 37) 詩經, 小雅 卷 14 采芣 “赤芾在股 邪幅在下” 左傳, 卷 3 桓公 2年 夏4月 戊申 “大路越席 大羹不致 粢食不鑿 昭其儉也 衰冕敝珽 帶裳幅烏 衡紃紃 紃 昭其度也”
- 38) 위의 『시경』 기록에 대한 주석들 : 漢 毛亨 傳 “賦也 脛本曰股 邪幅幅也 邪纏於足 如今行脛 所以束脛 在股下也”, 後漢 鄭玄 箋 “邪幅如今行脛也 偃束其脛 自足至膝 故曰在下”, 唐 孔穎達 疏 “幅與行脛 今古之異名” 및 漢 劉熙, 『釋名』卷 5 釋衣服 “偃所以自逼束 今謂之行脛 言以袞脚可以跳騰輕便也” 참고.
- 39) 成百曉 譯註 (1996). 詩經集傳. 下. 전통문화연구회, pp. 161-162. “言諸侯服此芾幅 見于天子 恭敬齊肅 不敢紆緩 則爲天子所與而申之以福祿也”
- 40) 禮記, 內則 “子事父母 鷄初鳴 咸盥漱 櫛縱并總 拂髦冠 綉纓 端緝紳 摺笏 左右佩用 左佩紛說刀礪小觿金燧 右佩玦捍管籥大觿木燧 屨屨着綦”
- 41) 漢 衛宏. 漢官舊儀, 下. “鼓武吏赤幘大冠 行脛 帶劍佩刀 持盾 披甲 設矛戟 習射” 三國志, 卷 54 吳書 9 呂蒙傳 “數歲 鄧當死 張昭薦蒙代當 拜別部司馬 權統事 料諸小將兵少而用薄者 欲并合之 蒙陰除黃 爲兵作絳衣行脛” 新唐書, 卷 50 志 40 兵 府兵 “太宗貞觀十年(636) 更號統軍爲折衝都尉 別將爲果毅都尉 諸府總曰折衝府 … 人具弓一 矢三十 胡祿 橫刀 礪石 大觿 氈帽 氈裝 行脛皆一 麥飯九斗 米二斗 皆自備 并其介冑 戎具藏於庫”
- 42) 新唐書, 卷 23上 志 13上 儀衛 “黃麾仗 左右廂各十二部 十二行 … 第十二行 金花綠膝格槓刀 赤地四色雲花襖 冒 十二行皆有行脛 鞋 鞞 … 左右領軍衛黃麾仗 … 十廂各獨揭鼓十二重 重二人 赤地雲花襖 冒 行脛 鞋 鞞 居黃麾仗外 … 又有夾殿隊 廂各六隊 隊三十人 胡木毳 毳 蜀錦 懸鈴 覆膊 錦臂鞞 白行脛 紫帶 鞋 鞞 持攢 槓 刀 … 廂別二百五十人執仗 二百五十人執仗 皆赤地雲花襖 冒 行脛 鞋 鞞 又 又次相間 … 步甲隊從左右廂各四十八 前後皆二十四 每隊折衝都尉一人 主之 被繡袍 每隊一人 戎服大袍 帶橫刀 執旗 二人引 二人夾 皆戎服大袍 帶弓箭橫刀 隊別三十人 被甲 臂鞞 行脛 鞋 鞞 … 次大輦一 主輦二百人 平巾幘 黃絲布衫 大口袴 紫氈帶 紫行脛 鞋 鞞” 同書, 卷 23下 志 13下 儀衛 “皇太子出 … 次儀仗 左右廂各六色 每色九行 行六人 赤褙襖 冒 行脛 鞋 鞞 … 廂各有獨揭鼓六重 重二人 居儀仗外 仗仗內 皆赤褙襖 冒 行脛 鞋 鞞” 이상 당(唐)대 기록이며 이후 宋, 金, 元史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록들이 보인다.
- 43) 新唐書, 卷 222下 列傳 147下 東謝蠻 “西巖之南 有東謝蠻 居黔州西三百里 南距守宮獠 西連夷子 地方千里 … 貞觀三年(629) 其酋元深入朝 冠烏熊皮若注旆 以金銀絡額 被毛毳 韋行脛 著履”
- 44) 舊唐書, 卷 29 志 9 音樂 2 “扶南樂 舞二人 朝霞行纏 赤皮靴 … 天竺樂工人 皂絲布頭巾 白練襦 紫綾袴 緋 帔 舞二人 辮髮 朝霞袈裟 行纏 碧麻鞋 袈裟 今僧衣是也”
- 45)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pp. 302-303.
- 46) 欽立 輯校 (1995). 先秦漢魏晉南北朝詩. 下. 中華書局, p. 2615. 陳 무명씨, 『雙行纏』詩 “新羅綉行纏 足趺如春妍 他人不言好 獨我知可憐” 全唐詩, 上 卷 243 33 唐 韓翃 「寄哥舒仆射」詩 “帳下親兵皆少年 錦衣承日綉行纏”
- 47) 王友勝·李德輝 校註 (2003). 李賀集. 岳麓書社, p. 132. 「黃家洞」詩 “彩布纏蹄幅半斜 溪頭篋隊映葛花”
- 48) 明史, 卷 67 志 43 輿服 3 樂工冠服 “南蠻四人 緋朝天髻 繫紅羅生色銀錠 紅銷金抹額 明金耳環 紅織金短襖 子 綠織金細摺短裙 絨錦袴 間道紵絲手巾 泥金頂牌 金珠璣瑤綴小金鈴 錦行纏 泥金獅蠻帶 綠銷金攤項 紅結子 赤皮仗”
- 49) 日本書紀, 卷 29 “天武天皇 … 十一年(683) 三月 … 辛酉 詔曰 親王以下 百寮諸人 自今以後 位冠及禪褶 脛裳 莫著 … 朱鳥元年(687) 秋七月 己亥朔 庚子 勅 更男夫着脛裳 婦女垂髮于背 猶如故”
- 50) 續日本紀, 卷 2 “大寶元年(701) … 三月 … 甲午 … 始依新令 改制官名位號 … 其袴者 直冠以上者皆白縛口袴 勤冠以下者白脛裳”
- 51) 續日本紀, 卷 3 “文武天皇 … 慶雲 三年(706) 十二月 己卯 有勅 令天下脫脛裳一著白袴”
- 52) 令義解, 卷 6 衣服令 19 武官禮服 “衛府督佐 並皂羅冠 皂綾 牙笏 位襖 加繡襦襦 金銀裝腰帶 金銀裝橫刀 白袴 烏皮靴 錦行躡”
- 53) 令義解, 卷 6 衣服令 19 武官朝服 “其志以上 並皂纓頭巾 皂綾 … 會集等日 加繡襦襦 赤脛巾 … 兵衛 皂纓頭巾 皂綾 … 主帥 皂纓頭巾 皂綾 … 白脛巾 … 並朝廷公事則服之 衛士 皂纓頭巾 桃染衫 … 白脛巾 … 朔日節日則服之”
- 54) 延喜式, 卷 45 左右近衛府 “凡騎射人於本府馬場教習 … 官人二人著皂綾 緋布衫 … 行躡 麻鞋 … 近衛四十人皂綾 緋布衫 … 行躡 麻鞋”, “大儀 … 將監 將曹 竝皂綾 深綠襖 錦襦襦 白布帶 橫刀 弓箭 緋脛巾 麻鞋 府生 近衛 … 白布脛巾 … 凡供奉行幸 … 近衛 … 蒲脛巾”의 卷 46, 47, 48, 49에도 다수 예가 있음.
- 55) 天平勝寶 八歲 6월 21일 獻物帳(國家珍寶帳) 御甲壹 伯領 條 “短甲十具 別青一口 甲一領 行脛一具 覆臂一具”그 뒤의 挂甲九十領 항에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正倉院寶物』3 北倉 III, 平成 8年(1996), 毎日新聞社, pp.49-50.
- 56) 延喜式, 卷 45 左右近衛府 “府生 近衛 竝皂綾 深綠襖 挂甲 白布帶 橫刀 弓箭 白布脛巾 麻鞋”
- 57) 儀式, 卷 1 賀茂祭儀 “山城國步兵左右各十人 (著皂綾 黃衣 白布帶 蒲脛巾 執杖) 騎兵左右各十人(著皂綾 退紅染衣 白布帶 橫刀 弓箭 熊皮行脛) 其間郡司八人 (前頭典 騎兵道引者 相當竝著皂綾 綠布衫 白布帶 橫刀 弓箭 熊皮行脛 從者各二人)”
- 58) 萬葉集, 卷 16 3825 詠行脛蔓菁食薦屋梁歌 “食薦數 青菜煮將來 梁爾 行脛懸而 息此公”
- 59) 河豬實英 編 (1969). 日本服飾史辭典. 東京: 東京堂出

- 版, p. 205.
- 60) 延喜式, 卷 5 神祇 5 “造備雜物 … 脛巾八十八條 脛纏八十八條 袜八十八兩”
- 61) 竹內理三 編 (1943). 寧樂遺文. 上, 東京: 八木書店, p. 373. 大安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合織脛纏貳條 佛物”
- 62) 延喜式, 卷 43 春宮坊 “東宮駕輦以下出 帶刀舍人服上儀服 被甲脚纏末額立前”, 同書, 卷 46 左右衛門府 “凡緋抹額七百條 … 脚纏五十具 斬布一端一丈八尺”
- 63) 正倉院寶物, 8, 南倉 II, p. 45.
- 64) 正倉院寶物, 6, 中倉 III, p. 197.
- 65) 묵서명(墨書銘)에 “東大寺前一力士(天平勝)實四年(752)四月九日”이라 기록되었으며, 겉은 紫地長斑錦, 안은 白纁로 되었다. 실측치 41cm X 30cm, 正倉院寶物, 8, 南倉 II, p. 45, p. 139, p. 267.
- 66) 묵서명에 “東大寺 度羅樂 婆理脛裳 天平勝實 四年四月九日”이라 기록되었고 겉은 綠地錦, 안은 白纁로 되었다. 중앙 상하에 끈이 부착되어 있다. 실측치 39 X 28cm, 正倉院寶物, 6, 中倉 III, p. 197, p. 253, p. 264.
- 67) 묵서명 없고, 겉은 紫地錦 안은 紫綾, 麻布로 심을 넣었다. 실측치 45 X 21cm 正倉院寶物, 8, 南倉 II, p. 191, p. 255.
- 68) 각 네 모서리에 끈이 달렸다. 실측치 32 X 52cm, 위의 책, p. 191, p. 255.
- 69) 묵서명에는 각각 “東寺 吳樂 前二 天平勝實四月九日”, “吳樂後二 天平勝實四月九日”이라 기재되었다. 위의 책, p. 157, p. 271.
- 70) 위의 책, 南倉 II, p. 157.
- 71) 위의 책, p. 125.
- 72) 위의 책, p. 190.
- 73) 묵서명에 분명히 명칭이 기재된 예로는 “東寺 唐古樂 羅陵王 接腰”, “東大寺 女儻 接腰” 2점, “東寺 唐古樂 破陣樂 接腰” 2점, “東大寺 唐散樂 噴面 接腰”, “東寺 狛樂 粹取 接腰” 2점 등이 있다. 그 외 “東大寺 前一金剛 粹取”, “東大寺 前一力士粹取” 등의 묵서명이 있는 예도 약장속으로 사용된 점으로 여겨진다.
- 74) 正倉院の繪畫.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昭和 43年(1968), pp. 28-32.
- 75) 正倉院寶物, I, 北倉 I, p. 53.
- 76) 朝鮮王朝實錄, 世宗 111卷 28年(1446) 3月 27日 甲午 “牽馬陪正闕達陪寶馬倍衣帶陪諸員等 白布直領衣白雲鞋白行纏白笠熟麻帶 卒哭後 白木縣陝注音衣黑草笠黑雲鞋白全帶白行纏 … 蓋陪橋子陪 白衣白頭巾熟麻帶白雲鞋白行纏”
高麗史, 卷 79 志 33 食貨 2 科歛 및 朝鮮王朝實錄, 太宗 31卷 16年(1416) 5月 14日 乙巳에도 行纏이 보이지만 이 기록들은 각반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간주된다.
- 77) 朝鮮王朝實錄, 世宗 113卷 28年(1446) 9月 11日 丙子 “傳旨戶曹 前此各殿各宮衣纏苧布 用十五十四三升自今改用十二升”
- 78) 朝鮮王朝實錄, 世宗 132卷 五禮 嘉禮序例 鹵簿, 世宗 134卷 五禮 凶禮儀式 發引班次, 返虞班次, 端宗 2卷 卽位年 8月, 端宗 11卷 2年 7月, 世祖 10卷 3年 11月, 世祖 27卷 8年 2月, 睿宗 1卷 卽位年 9月, 睿宗 2卷 卽位年 11月, 英祖 127卷 52年 3月 등.
- 79) 朝鮮王朝實錄, 明宗 27卷 16年(1561) 閏5月 21日 庚戌 “星州居私婢莫德 嫁夫經一旬而死 … 家居不解衣裳 常着行纏”
- 80) 軍中の 큰 旗인 纛에 지내는 제사
- 81) 樂學軌範, 卷 9 “回斂 纛祭 槍劔弓矢干戚舞工人所着回斂以黑綿布爲表 白布爲裏”
- 82) 萬機要覽, 軍政編 2 兵曹各掌事例 一軍色 “正鞞陪六十名着紅木衣巾 帶 雲鞋 鶴髦 青木行纏 鐵錢 鐵鈴 錢牌 動駕時陪扈 副鞞陪四十名所着與正鞞陪同 動駕及陳寶殿座時陪扈 玉輦陪三十名 着紅木衣巾 帶 青木行纏 動駕殿座時陪從”
- 83) 四禮便覽, 卷 1 冠禮 諸具(序立) “勒帛 俗稱行纏 用綿布爲之 長三尺許 廣三寸許 布帛尺一頭有二繫 束脛至膝 纏繞袴管”
- 84) 四禮便覽, 卷 4 喪禮 “行纏卽家禮所謂勒帛小學所謂縛袴 禮雖不見於喪服 今人皆用布爲之 固不可廢布升 當如中衣”, 同書, 卷 6 喪禮 “行纏 稍細練布鐵爲之 制見上成服各服其服條 冠以下男子服”
- 85) 趙又玄 (1989). 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研究.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62.
- 86) 劉寬順 (1991). 韓國衾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17, p. 171.
- 87)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服食類 服食總說 “大昌衣二十八尺 道袍三十三尺 冬衣十八尺 內貢十八尺 赤古里十三尺 內貢十二尺 袴十四尺 內貢十四尺 赤衫十一尺 單袴十四尺 行纏二尺 襪表裏三尺五寸”
- 88) 芝峯類說, 卷 3 君道部 法禁 “且平時 雖長者着行纏穿直領衣 今則少者皆着道袍去行纏穿分套 雖子弟見長者亦然 習以爲常 則可見時俗之變矣”
- 89) 靑莊館全書, 卷 27-29 士小節 1 士典 1 服食 “行纏短狹 只掩袴口 服妖也”
- 90)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국립민속박물관조사장표, p. 245.
- 91) 張鴻修 (1995). 中國唐墓壁畫集. 嶺南美術出版社, p. 26.
- 92) 궁고(窮袴, 窮袴), 세고(細袴) 등도 좁은 바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왔지만, 궁고는 당(襠)이 있는 바지라는 의미로 더 인정되며(『漢書』列傳 卷 97上 外戚傳 67上 “孝昭上官皇后 … 光欲皇后擅寵有子 帝時體不安 左右及醫皆阿意 言宜禁內 雖宮人使令皆爲窮袴 多其帶 後宮莫有進者” 服虔曰: 「窮袴 有前後當 不得交通也」, 師古曰: 「使令 所使之人也 袴 古袴字也 窮袴 卽今之緹袴袴也 令音力征反 緹音下昆反」), 세고는 관고(寬袴)나 광고(廣袴)처럼 형용사적 의미를 가졌을 뿐 문헌 기록 예를 찾을 수 없어서 이 글에서는 문헌 기록 예가 있는 소구고(小口袴)를 택하였다. 소구고는 蠕蠕, 河南, 渴盤陁國, 武興國, 芮芮國 등의 서북계몽의 복식으로 『梁書』, 『魏書』, 『南史』, 『北史』 등에 기록되어 있다.(『梁書』卷 54 列傳 48 諸夷 西北諸戎 “河南王者 其先出自鮮卑慕容氏 … 著小袖袍 小口袴 大頭長裙帽 女子披髮爲辮 … 渴盤陁國 … 衣古貝布 著長身小袖袍 小口袴 … 武興國 … 著烏阜突騎帽 長身小袖袍 小口袴 皮靴 … 芮芮國 蓋匈奴別種 … 辮髮 衣錦小袖袍 小口袴 深雍靴”, 『南史』卷 79 列傳 69 夷貊 下北狄 蠕蠕 “北狄種類實繁 蠕蠕爲族 蓋匈奴之別種也 魏自南遷 因擅其故地無城郭 隨水草畜牧 以穹廬居 辮

- 髮 衣錦小袖袍 小口袴 深雍鞞”
- 93) 張鴻修 (1995). 앞의 책, p.22, pp. 26-27.
- 94) 외교 의례를 담당한 관직명
- 95) 都氏文集, 卷 4 “謝渤海楊大使贈貂裘麝香暗摸靴狀”
- 96) 冊府元龜, 卷 972 朝貢 5 “後唐 莊宗 同光 … 三年 二月 渤海國王大誼遣使裴瑒 貢人參 松子 昆布 黃明 細布 貂鼠皮被一 褥六 髮 靴 革 奴子二”
- 97) 金毓敏 (1934). 渤海國志長編, 華文書局, 卷 17 食貨考 靴 “謹案 渤海人能制靴 玄錫六年 聘日本使楊中遠餽暗摸靴 末王十九年 使臣裴瑒貢靴于後唐是也 此靴蓋爲革制 惟暗摸靴 命名之義未詳 或爲夜行時所需 故名暗摸”
- 98) 中村璋八, 大塚雅司 (1988). 都氏文集全譯, 東京: 汲古書院, p. 139.
- 99) 上田 雄 (1992). 渤海國の謎, 東京: 講談社, pp. 122-123; 최봉렬 譯 (1994). 발해의 수수께끼, 교보문고, p. 102.
- 100) 上田 雄 (2002). 渤海使の 研究-日本海を渡った使節 たちの軌跡-, 東京: 明石書店, p. 839. 일본학자의 저술 중에는 暗摸靴로 기재한 경우가 있다. 이 책에도 暗摸靴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위와 같이 해석하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원 기록 『都氏文集』에는 暗摸靴로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 101) 新唐書, 卷 37 志 27 地理 1 關內道, 卷 39 志 29 地理 3 河北道 吳 河東道, 卷 40 志 30 地理 4 隴右道 吳 山南道, 卷 42 志 32 地理 6 劍南道, 卷 43 下 志 33 下 地理 7 下 河北道, 『舊唐書』卷 12 本紀 12 德宗 李适 上 등 참조.
- 102) 舊唐書, 卷 197 第147 南蠻 西南蠻 林邑國, 卷198 第148 西戎 波斯國
- 103) 李成市 저, 김창석 역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신라·발해와 정창원 보물, 청년사, pp. 124-134.
- 104) 北齊書, 卷 50 補 列傳 42 恩倖 韓寶業等 “榮宗前奏曰 臣向見郭林宗從冢出 着大帽 吉莫靴 插馬鞭 問臣我阿貞來不 是時羣安多皆類此”
- 105) 김민지 (2000). 앞 논문, p. 74.
- 106) 李殿福 (1983). 唐代渤海貞孝公主墓壁畫與高句麗壁畫比較研究, 黑龍江文物叢刊, 2, p. 40.
- 방학봉 (1991). 발해문화연구, 이론과실천, p. 120.
- 107) 주 97참고
- 108) 日本三代實錄, 卷 20 “清和天皇貞觀十三年(871) 十二月 十一日壬子 … 渤海國入覲使楊成規等百五人着加賀國岸”
- 109) 위의 책, 卷 21 “貞觀 十四年(872) … 五月 丙子(7) 掌渤海客使少內記都宿祿言道自修解文 請官裁稱 姓名相配 其義乃美 若非佳令 何示遠人 望請改名良香 以遂穩便 依請許之 甲申(15) … 共引渤海國入覲 大使政堂省左允正四品慰軍上鎮將軍賜紫金魚袋楊成規 副使右猛貫衛少將正五品賜紫金魚袋李興晟等二十人入京安置鴻臚館”
- 110) 위의 책, “(貞觀 十四年) 五月 … 丁亥(18) 勅遣左近衛中將從四位下兼行備中權守源朝臣舒 向鴻臚館 檢領楊成規等所齎渤海國王啓及信物 … 中臺省牒曰 … 其信物大蟲皮七張豹皮六張熊皮七張蜜五斛”
- 111) 위의 책, “己丑(20) 內藏寮與渤海客廻易貨物 庚寅(21) 聽京師人與渤海客交關 辛卯(22) 聽諸市人與客徒私相市易 是日 官錢四十万賜渤海國使等 乃喚集市塵人 賣與客徒此間土物”
- 112) 위의 책, “貞觀 十四年(872) … 五月 … 癸巳(24) … 是日 勅遣民部少輔兼東宮學士從五位下 橋朝臣廣相 賜客徒曲宴 遣兵部少輔從五位下兼行下野權介高階真人令範 賜御衣 客主具醉 興成賦詩”
- 113) 위의 책, “貞觀 十四年(872) … 五月 … 甲午(25) … 是日 … 大使楊成規跪言 成規等覲聘禮畢歸本土去 今差天使 令其領送 成規等覲望丹闕 涕泗盈衿 仰戀之誠 中心無限 臨別 掌客使都良香 相遮館門 舉幘而進”
- 114) 이 글의 양대사를 『都氏文集全譯』에서는 양중원으로 보았지만, 上田은 양성규 쪽이 더 합당할 것으로 보았다. 上田 雄 (2002). 앞의 책, pp. 832-833. 필자는 上田의 견해에 동의한다.
- 115) 日本三代實錄, 卷 30 “元慶元年正月 戊子(16) … 是日 出雲國言 渤海國大使政堂省孔目官楊中遠等一百五人去年十二月二十六日着岸 中遠申云 爲謝恩請使 差遣中遠等 兼獻方物 於鳴根郡安置供給”
- 116) 위의 책, 卷 31 “元慶元年 六月 甲午(25) 渤海國使楊中遠等 自出雲國還於本蕃 王啓并信物不受而還之 大使中遠欲以珍翫玳瑁酒盃等奉獻天子皆不受之 通事園池正春日朝臣宅成言 昔往大唐 多觀珍寶未有若此之奇怪 太政官宣先皇制一紀以來朝期爲 而彼國王此制違使奉出 凡厥謝恩及請使等事 存問之日 屈伏既訖 仍齎參來所啓并信物等不更奏聞 客人此狀知 平治賜所本國退還爲 御手物道粮賜餐給宣”
- 117) 위의 책, “元慶元年 四月 己丑(18) 存問兼領渤海客使少外記 大春日朝臣安名等 寫渤海國王啓并中臺省牒馳驛上奏”
- 118) 中村裕一 (1979). 渤海國咸和十一年中臺省牒に就いて-古代東アジア國際文書の一形式,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임상선 편역 (1991).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p. 330.